

# 5년간 200억 투입 '문화도시' 공모 열기 뜨겁다

문체부 24일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접수... 11월 선정  
여수·나주·광양·목포·고흥·담양 등 6개 시·군 신청 준비 중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전남지역 기초단체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사 11면)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4일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 접수를 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

자체가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예비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간의 예비 사업과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최대 200억원(국·시비 균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인한 지역(도시) 브랜드 상승효과와 함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다.  
전남에서는 여수·나주·광양·목포시, 고흥·담양군 등 6개 시·군이 신청을 준비 중

이다. 이들 시·군은 공모 접수에 앞서 전남도와 관련 서류 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다만 문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5-10개 지자체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예비 지정 명단에 전남 기초단체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 등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선정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 공모에는 19개 지자체가 지원해 최종 7개 지자체가 지정됐고, 2차 공모에는 24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경기 2곳, 인천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1곳, 경북 2곳, 경남 1곳, 부산 1곳, 제주 2곳이다.  
순천시의 경우 제2차 공모를 통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1년간의 예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 문화도시 최종 지정 심사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 문화예술과 박상은 주무관은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수요 조사를 한 이후 사업 지원 협약 등을 협의하고 준비해 왔다"며 "사업 참여 전남 시·군이 올 11월 예정된 예비 문화도시 선정 지역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김기태 GS칼텍스 회장 등이 14일 여수 장도중앙전시관에서 장도를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 여수 장도에 50억 투입 '예술의 숲' 조성

전남도, GS칼텍스·여수시 협약  
전남도는 장도 예술의 숲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GS칼텍스, 여수시와 협의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예술로 치유되는 섬(Healing Art Island)'이라는 조성 테마를 구상했으며, 여수시는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추경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본격 나섰다.  
김기태 GS칼텍스 사장은 "장도의 아름다운 숲을 예술마루와 연계해 국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기업의 사회공헌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장도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GS칼텍스, 여수시와 업무협약으로 장도 예술의 숲이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며 "전라남도의 보물 장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품 예술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14일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민자치과 직원, 우산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일상화 범시민 캠페인을 열고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지 배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도 '곤충산업' 성장동력 육성 박차

3개 사업에 12억 지원  
전남도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인프라 구축과 수요 확대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77개 농가가 사슴벌레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사육해 연간 4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가의 비율은 전국(2535농가)의 7%, 매출액은 전국(405억원)의 10.4%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도내 곤충사육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 곤충 사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사육농

## 전남도, 돼지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도... 31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조사·분석 결과 대상품목으로 돼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

## 광주 백운고가 철거 11월 완료

교통 혼잡 후속 대책 시행  
도시철도 2호선, 백운고가 철거, 지하차도 건설로 혼잡이 예상된 백운광장 구간 차량흐름은 적응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건설본부는 분석했다.  
백운고가 통제 직후인 지난달 5일 백운광장 1일 교통량은 공사 전 15만163대에서 7만7592대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는 교량 상판 철거 시 크레인 이차로를 점유하게 돼 혼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야 또는 새벽에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주월교차로 횡단보도 위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말에는 백운광장에서 주월교차로 구간이 왕복 11차로까지 확장돼 혼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  
예술편력:김영태 "누군가 다녀갔듯이"  
2020. 06. 09. - 08. 30. 갤러리 2, 3

누군가  
다녀갔듯이

전북 남원시 함파우길 65-14  
(남원항공우주전문대 밀) T.063.620.5660